

# 월연금액 60만원 돌파...무주택자 4명 중 1명 연금 없다

### 65세 이상 수급률 90.1%...여성 44만7000원 '남성의 57%'

### 광주 69만3천원 '전국 두 번째'...전남 수급률 94.7% 전국 1위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월 69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수급액이 많았고, 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9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장년층 10명 중 8명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단 한 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6~2021년 연금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통계는 기초·국민·지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는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 연금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연금 월 25만~50만원 받는 수급자 가장 많아...200만원 이상은 4.9%=2021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2016년 87.0%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해 2021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마산

가지로 매년 상승세다.

2021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2000원)보다 6.7% 증가하면서 처음 60만원대를 기록했다. 2016년 42만3천원이었던 연금 수급액은 매년 4만원 내외씩 늘고 있다.

연금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5000원, 기초연금은 27만3000원, 지역연금은 243만9000원이었다. 지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가입 기간은 약 2배, 보험료는 약 4배까지 차이가 나 수급액이 더 많았다.

다른 연금을 포함한 총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4000원, 지역연금 수급자는 254만4000원이었다.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3.3%로 가장 많았다. 25만원 미만은 21.1%, 200만원 이상은 4.9%를 차지했다.

성별 수급액을 보면 남성이 78만1000원, 여성이

44만7000원으로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 수급자의 수급액이 7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69만3000원), 서울(67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94.7%로 가장 높았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급액은 67만7000원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입자(57만원)보다 약 1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의 수급률은 90.5%로 무주택자(89.8%)와 비슷했다. 반면 수급액은 주택 소유자(76만2000원)가 무주택자(47만2000원)보다 29만원 더 많았다.

◇연금 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32만9000원 납부=2021년 기준 18~59세 청장년층 중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가입률)은 78.8%였다. 이 중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3%였다. 모두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4.1%로 미취업자(49.1%)와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자는 월평균 37만80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의 90.8%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의 가입률은 73.7%에 그쳤다.

연금 가입률은 남자(82.6%)가 여자(74.7%)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85.7%)가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586만6000가구로 전체의 95.4%였고 월평균 수급액은 77만1000원이었다.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15만2000가구로 91.3%를 차지했고 월평균 보험료는 5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 ‘아는 사이’ 5만원 축의금 ‘친한 사이’ 10만원

### “동반자 있거나 식비 비싼 예식장일 때 더 낸다” 76%

‘알고 지내는’ 사람이 결혼을 한 땀 5만원, ‘친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축의금이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예식장 식비 역시 크게 오르자, 동반자와 함께 가거나 식비가 비싼 예식장의 경우 축의금을 더 내는 사람이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이지 토크’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객들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5만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를 내는 응답은 44%로 뒤를 이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 ‘20만원 초과’는 1%였다.

우리나라 축의금 문화상 ‘5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이들은 5만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이들은 주로 10만원 또는 7만원의 축의금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친한 사이’에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52%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9%로 조사됐다.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는 13%, ‘5만원 이하’ 3%, ‘30만원 초과’ 3% 등 순이었다. 친한 사람이 결혼 할 때 절반은 1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손수를 기준으로 보면 3촌 이내 결혼식에는 축의금으로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43%로 많았다.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27%였다.

특히 결혼식장에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축의금을 더 낸다고 답한 응답은

76%에 달했다. 또 결혼식장의 식사비용이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낸다고 응답한 사람이 61%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KB국민카드가 최근 1년 결혼식장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원의 음식점, 가구, 가전 관련 업종 매출 및 해외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가구·가전 업종 매출은 결혼식 4~5개월 전부터, 결혼식을 알리는 인사로 추정되는 음식점 업종 매출은 결혼식 2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월별 음식점 매출 비중은 결혼식 당월이 13%로 가장 높았고, 결혼식 1개월 전 10%, 2개월 전 9%로, 결혼식과 가까울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신혼 여행지를 보면 해외가 80%, 국내(제주 포함)가 20%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로 신혼여행을 가는 회원의 비중은 22년 1분기 58%, 2분기 47%로 높았으나, 3분기 32%, 4분기 28%로 줄어든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대형마트, 몸값 비싸진 한우 ‘반값 할인’

### 롯데마트·이마트 등 ‘한우데이’ 행사 예정대로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한우고기 가격이 오르자, 대형마트들이 한우데이(11월1일)를 앞두고 ‘반값 판매’에 나서며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을 펼친다.

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지난 23일 1만9365원에서 다음달인 24일 2만53원으로 3.55% 올랐다.

럼피스킨병 발생 전인 18일 kg당 1만8179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3% 상당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한우고기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한우데이를 맞아 진행키로 했던 반값 한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를 앞두고 미리 확보했던 한우 물량을 풀겠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등급 한우와 최상급 마블라인 한우 전 품목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이 냉장 100g 기준 5000원대 후반 정도다.

두 달 전부터 직접매에 참여해 1000마리분을 확보한 뒤 직접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 유통단계

를 줄이면서 반값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롯데마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이마트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냉장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하고, 주말 2일 동안에는 1등급 한우 등심은 추가 할인을 통해 100g당 6000원 초반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우데이를 기념한 고기 할인 행사 ‘K-MEAT 페스타’를 열고, 농협안심한우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소프트라이프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1등급 한우 행사가는 등심 100g에 8000원대로, 불고기·국거리류는 2000원대에 판매할 방침이다.

또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한우장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등급 한우 등심을 100g에 6000원대 후반에 선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학술대회 개최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은 26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통합정책’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거버넌스학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광주의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노동의 미래와 상생의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 1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광주 노동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 이어 오선정 전남대 교수가 외국인노동자의 직업교육훈련과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앞서 개최식 전 한국거버넌스학회와 상생일자리재단은 지역 일자리·노동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교류를 비롯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SI, 외국인노동자, 저출산과 초고령화, 돌봄 등 노동시장의 미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고용·노동정책에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시제품 제작터’ 운영 주관기관 모집

### 광주·전남중기청, 내달 1~1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26일 제조창업의 촉진과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제품 제작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메이킹 공간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내에 설치돼 있다. 전문가가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직접 가능하고, 창업자도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장비 등을 구축했다.

또 장비·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창의성과 열정을 갖춘 사람들이 교류·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시제품 제작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이 있는 주관기관을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총괄책임자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인력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또 메이커 발굴, 장비 등 기자재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 행사 프로그램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시 2년간 시제품 제작터 운영이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케이-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종래 청장은 “시제품 제작터는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최적의 공간으로, 기술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될 기대한다”며 “역량이 있는 주관기관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9.08(-64.09)
↓ 코스닥	743.85(-26.99)
↑ 금리(국고채 3년)	4.104(+0.066)
↑ 환율(USD)	1360.00(+10.30)

## 불경기? 사치품은 불티나!

### 명품가방·시계 등 과세건수 매년 증가...지나해 5만8386건

불경기에에도 사치품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2019년 2만9054건→2020년 3만

5974건→2021년 5만2999건→2022년 5만 8386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세액 당달이 늘어 2019년 1362억원에서 2022년 2834억원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해 기준 품목별 과세건수는 고급가방이 3만

79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급시계 9967건, 보석·귀금속 4842건, 고급가구 3682건 등 순이었다.

부과세액은 고급시계가 12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석·귀금속 788억원, 고급가방 593억원, 고급가구 121억원 등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억짜리 ‘마제스티’ 우루시 세트 만나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1층에서 고객이 3억원 상당의 ‘마제스티(MAJESTY)’ 하이엔드 골프 클럽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9일까지 마제스티 우루시 세트(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파터)와 셀레스티얼 세트(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유틸)를 전시한다.  
〈광주신세계 제공〉